

갈등과 분규 '멍에'... 한글대장경 '성과'

20세기 한국불교 10대 사건

■ 사찰령 시행

한국불교는 1911년 6월 3일 일제가 '사찰령'을 반포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식민통치의 예속을 받게 됐다. 사찰령은 전국 1천3백여개 사찰을 31개 권역으로 나눠 본말사 구조를 갖추게 하고 조선총독부가 주지임명권과 사찰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악법. 특히 본사에서 행하는 법식에 일본 경축일과 역대 천황 재일(祭日)을 강제로 규정해 시행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조선불교를 이용해 일본정신을 주입시키고 일본천황을 존경케 하여 조선인을 황민화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다.

사찰령은 1920년대 이후 불교계의 혁신운동과 민해스님으로 대표되는 개혁스님들이 주축을 이룬 조선불교 유신회등의 사찰령 폐지운동으로 마침내 해방이후 폐지됐다. 그러나 조계·태고 분쟁을 야기시키고 종교가 국가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되는 불행한 선례를 남겼다.

■ 조선불교 선학원 창설

일제가 사찰령을 반포하고 한국불교의 전통을 말살하자 한국불교의 선을 중흥시키고 민족의 혼을 되살리려는 취지에서 경허·만공·용성스님 등 11명의 선승들이 뜻을 모아 1921년 '조선불교 선학원'을 창설했다.

그러자 이듬해인 1922년 친일승려들로 구성된 31본산 주지들이 서울 각황사에 모여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교무원을 설립해 선학원 견제에 나섰다. 이에 선학원도 계속되는 일제의 탄압속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재단법인 조선불교 선리합구원'이라는 이름으로 1934년에야 겨우 법인 인가를 받았다.

선학원은 총독부가 조선불교를 타락시키기 위한 음모 속에서 청정비구 중심의 한국불교 전통을 고수하고 선수행을 굳건히 실천함으로써 민족혼을 지키는 데 구심점 역할을 했다.

■ 비구-대처 갈등

1954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5월 발표한 '대처승은 사찰에서 불거기'는 요지의 유시는 그동안 잠재해있던 비구-대처 승간의 갈등과 반목이 표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비구-대처승 양측은 첫 유시가 발표되자 정화회의를 열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끝내 대처승들이 소유하고있던 태고사를 비롯, 각 절들을 뺏고 빼앗기는



◇ 1954년 12월 13일 전국비구승대회에 미친 5백여명의 비구승 스님들은 전국비구승대회 만세 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조계사에서 중앙청(현 중앙박물관)까지 행진을 벌였다.



◇ 범승가중단개혁추진위원회는 주지 인사비리, 정치권력과의 결탁 등 부정부패의 상징이었던 서의현총무원장을 몰아내고 1994년 4월 13일 개혁회의를 출범시켰다.



◇ 1990년 불교방송의 개국으로 전파교시대를 열었다. 80~90년대 교계신문의 잇따른 창간으로 불교언론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그후 양측은 법정투쟁을 시작했고 마침내는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에 '불교재산관리법'을 제정토록 하는 발미를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비구측이 정부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으면서, 대처측이 70년 '한국불교태고종'이라는 이름으로 창종, 양측은 법적인 싸움을 끝냈지만 아직도 선암사 봉원사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정화유서'를 발표했는지는 아직도 수수께끼로 남아있지만 불교계는 두고두고 자율정화가 아닌 관권에 의한 정화운동이라는 멍에를 쓰게 됐으며 이때 비구측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자 불랑배를 동원 급조된 승려를 양산하는 병폐를 초래. 이후 조계종은 최근까지 이 후유증을 앓아야 했다.

■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

1945년 미군정에 의해 크리스마스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불교계는 끊임없이 부처님 오신날을 공휴일로 제정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정부는 석가 탄신일의 공휴일 제정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말을 되풀이하다. 마침내 1975년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법정 공휴일 제정이 통과됐다. 부처님 오신날의 공휴일 제정은 불교의 현대화를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일로, 매년 4월 초과일이 전국민이 함께 하는 축제의 날로 자리잡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봉축행사가 개최되는 토대가 됐다.

21년 선학원 창설 선불교 지킴이 역할 75년 부처님 오신날 법정공휴일 제정 90년 불교방송 첫전파... 불교언론 발전

■ 10.27 법난 발생

1980년 10월 27일 새벽4시 총검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사회정화와 용공분자 범법행위자 색출을 명분으로 조계종총무원과 전국 주요사찰에 난입. 당시 조계종총무원장 일주스님을 비롯 스님과 재가불자 1백59명을 연행하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 30일에도 3천여 사찰에 군인과 경찰을 투입해 수색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낙산사 주지 원철스님이 사망했다. 불교계는 이후 이 사건을 법난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89년 12월 30일 김영삼 국무총리를 통해 정부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아직도 정확한 진상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 민중불교운동연합 창립

1985년 5월 4일 경찰의 자지를 피해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2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열고 초대

의장에 여익구씨를 선임하는 한편 창립선언문을 발표했다. 민불련은 창립선언문에서 "관재불교·산속불교·귀족불교를 배격하고 불교의 민중화를 이룩할 것이다. 부처님을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 거리로, 낮은 곳으로 모시는 운동이며, 민중의 삶에 동참하는 운동이다"고 천명하고 불국경토 건설, 자주적 평화통일 달성, 민중불교 확립을 강령으로 채택했다. 민불련은 불교계의 민중운동 사회운동을 이끌었으며, 관재불교 산중불교의 탈피 등 불교내부의 개혁에도 기여했다. 서동석 당시 의장 등 집행부의 구속으로 91년 활동을 마감했다.

■ 불제법 폐지, 전사법 제정

정부는 1987년 10월 23일 불교재산관리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으로 전통사찰보존법을 제정, 공포했다. 62년 제정된 불교재산관리법은 사찰주지 임명시 문공부 등록, 사찰 재산 처분의 허가 및 신고 등을

의무화해 불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악법이었다. 86년 9월 7일 해인사에서 열린 조계종 전국승려대회에서는 불교재산관리법의 폐지를 결의하기도 했다. 새로 제정된 전사법에도 주지 취임시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토록 한 규정이 있어 불교계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97년 신고조항 등을 삭제했다.

■ 불교언론 활성화

1990년 5월 1일 불교방송이 첫 전파를 발사한 데 이어 부산 광주 대구 청주에 지방국을 설립하면서 방송포에 크게 기여했다. 95년 3월 1일에는 케이블TV인 불교텔레비전이 개국, 영산포교시대를 열었다. 이에 앞서 60년 '대한불교' (불교신문 전신), 80년대 '주간불교' '법보신문' '대중불교', 90년대 들어 '대한불교' '현대불교'가 잇따라 창간하면서 불교언론은 비약적 발전을 이루었다. 이들 신문과 잡지는 포교매체로서의 기능은 물론 불교의 의회, 공론의 장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 고려대장경 번역, 전산화

1964년 7월 동국대학교에 역경원이 설립되면서 고려대장경의 한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전에는 용성 운허 탄허스님 등이 개별적으로 주요 경전을 한글로 옮겨 퍼냈다. 역경원은 65년 6월 <장야합경>을 처음으로 펴낸 이래 현재까지 2백89권 전권을 출판했다. 이로써 경전의 한국화라는 염원을 30여

년간에 이뤘다. 그러나 초기 번역은 요즘의 언어에 맞게 다시 번역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역경원은 한글대장경을 CD롬에 담은 작업을, 고려대장경연구소는 고려대장경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터넷에 올렸다.

■ 조계종 개혁중단 출범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3선 반대와 주지 인사비리 적결, 정치권력과의 결탁 등 해묵은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불교도의 열원이 마침내 승리했다. 범승가중단개혁추진위원회는 서 의장을 몰아내고 1994년 4월 13일 개혁중단을 출범시켰다.

개혁중단은 출범이후 종헌·종법을 개정, 포교원과 교육원을 병원화해 포교와 교육에 박차를 가했다. 불교의 사회화에도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98년 11월 총무원장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폭력사태가 발생함에 이어 99년 10월 법원이 정화개혁회의의 총무원장 부존재 확인 소송에 손을 들어주면서 또 다시 내분을 겪었다.

11월 15일 정대승을 30대 총무원장으로 선출하면서 사태는 수습국면에 접어들었다.



오백나한 기도도량 - 거조암 새천년 맞이 영산재 및 철야기도 법회

삼보님께 일심 귀의하며, 오백나한 기도도량 거조암에서는 새 천년을 맞이하여 주변 정비공사 회향과 더불어 편안한 삶을 위한 영산재 및 조상전도와 철야기도법회를 봉행합니다. 연말과 정조를 맞이하여 교통이 편리하고 깨끗하게 정돈된 성지 거조암에서 봉행하는 기도 및 전도, 해맞이와 방생법회에 가족 모두 동참하시어 고통과 혼란을 벗어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영산재 및 철야기도 법회일시 : 1999년 12월 31일 21시 ~ 2000년 1월 1일 오전 8시

- 일정 안내 :
 - 12월 31일 밤 9시 30분 - 점등식
 - 9시 40분 - 거조암 주변 정비공사 회향 보고
 - 10시 - 영산재
 - 11시 - 영가천도제
 - 1월 1일 0시 - 33 타종 및 반발공양
 - 1시 - 법문 및 발원
 - 2시 30분 - 526배 기도
 - 4시 - 예불 및 정근
 - 6시 - 도량돌기 및 해맞이
 - 8시 - 방생 및 회향
- 장 소 : 거조암 영산전 및 마당
- 주 관 : 영천시 사암연합회
- 동참금 : 가족당 3만원
- 온라인번호 : 우체국 702068-0015098 거조암
- 교통편 안내 : 서울경기지역 : 진여회 ☎ (02) 821-3242 (011) 216-3241
기 타 지 역 : 거조암 중무소 ☎ (0563) 335-1369

오백성중님 반발공양물은 준비되어 있으며, 526분의 동참가족을 선착순 접수하고 있습니다.